

신안에 전남 최초 가족센터 건립된다

학교리 일원에 129억 투입 내년 12월 완공 계획 행정·교육·복지·의료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기대

신안군 압해읍에 행정과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계층을 아우르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남 최초의 가족센터가 들어선다.

신안군은 최근 박우량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김혁성 신안군의회위원장,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가족센터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가족센터는 학교리 일원에 총 129억을 들여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1만 3,188㎡, 연면적 3,403㎡(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지형과 지물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친화적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압해읍사무소 자리는 문화 광장과 함께 숲이 있는 공원화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한다.

특히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압해읍사무소,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일자리 교육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복지문화 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행정복지 가족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신안군은 최근 박우량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김혁성 신안군의회위원장을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가족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보인다. 군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복지거점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서비스

이용과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가족 친화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족센터에 이어 향후 보훈회관과 건강증진센터, 군립도서관도 건립될 예정이다.

각종 공연과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45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만들고 교육실과 프로그램실도 선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가족센터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청년, 여성 일자리, 다문화 가정, 주거 보육 문제를 해결할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스톱 복지 행정 통합서비스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명실상부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해남군민광장 국화향 가득 15일까지 15종 작품 전시

해남군민광장이 국화향기로 가득했다. 해남군은 오는 15일까지 해남군청 군민광장에서 제11회 해남 국화 향연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가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군민광장에 행사를 조성했다.

국화향연장에는 해남의 상징인 해남 성문과 땅갈이·희망이를 비롯해 뽀로로 등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 등 총 15종, 5만4,965점의 국화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나이가가라 폭포를 형상화한 국화 조형물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 국화동호회 회원들의 분재작품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은 오는 15일까지 해남군청 군민광장에서 제11회 해남 국화 향연을 개최한다. /해남군 제공

강진, 전남도 농정업무 '최우수상'

강진군이 2020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0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정업무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등 창조적 농정추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평가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식량원예작물 생산 ▲농산물판매 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강화 ▲가점 및 검정 등 총 7개 분야 35개 항목에 걸쳐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강진군은 전남도 22개 시·군 중 역대 고소득 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 업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강진 특산물 및 쌀귀리 식품 개발 육성 등 자체시책 개발까지

주요 농정시책 추진에 대한 높은 성과를 인정 받았다. 2018년 대상,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최우수상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 최초 '화훼단지 온라인 직거래 판매시스템'을 구축해 장미, 스타티스, 수국, 꽃작약 등 화훼류 4종을 총 395,379본을 판매해 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항인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의 수범사례로 화훼시장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과 신규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욱 군수는 “농업은 지역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발전적 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 톳·다시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세계 최초 획득...최대 보유국 자리매김

완도군의 톳·다시마 등 11개 양식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MSC를 신규로 획득했다. 톳과 다시마 ASC-MSC 인증 획득은 세계 최초이다.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가 해조류 ASC-MSC 인증 최대 보유국이 됐다. 완도군은 4일 “지난 4월 완도군 전북

양식 26개 어가에서 ASC를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톳과 다시마도 ASC-MSC를 받으면서 완도군이 친환경 수산물 본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ASC(세계양식책임관리위원회)는 해양 자원의 남획과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

식 어업을 위해 2010년에 만들어졌다.

해조류 인증의 경우 ASC와 MSC(해양책임관리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ASC-MSC' 이라 표기한다. ASC-MSC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수질, 생태계, 항생제 사용 등 환경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까지 보증해야 한다.

이에 군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거쳐 해양쓰레기

수거, 인증에 필요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해양환경(퇴적물·수질 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또한 어가와 유통업체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식장 인증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업체 인증(ASC-CoC)도 추진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국내 소비 증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 소안도 노지 감귤 수확 한창

완도군 소안도에서 최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소안도 노지 감귤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수확을 하고 올해 생산량은 120톤으로 예상된다.

소안도는 지난 2009년 노지 감귤 작목 반을 결성해 현재 70농가, 25ha에서 노지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소안도 노지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다. 또한 과실의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

돼 저장 기간이 길다.

특히 지난달에는 소안도 감귤 작목반 전체가 GAP 인증을 획득해 감귤의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한 감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완도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살려 아열대 작물을 발굴·보급할 계획이다”며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명품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신안군새마을회, 작은섬 봉사 활동

신안군새마을회가 작은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신안군새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명 남짓 거주하고 있는 하의면과 신의면, 장산면의 작은 섬인 개도, 기도, 고사도, 막금도, 백야도 등을 찾아 도배와 장판, 주방시설, 샷시, LED등을 교체하는 등 봉사

활동을 했다. 또 회원들은 옥상 방수와 천정·바닥 시공, 전기시설 점검, 폐인트·벽화 그리기, 생필품 전달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생필품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명정길 새마을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재경진도군향우회, 마스크 10만장 기탁

재경진도군향우회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10만장을 진도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마스크는 7개 읍·면에 배부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재경진도군향우회는 매년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훈훈한 미담

이 되고 있다. 박향진 회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내 고향 정진도를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군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삼호지구대, 주민 소통치안 호응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는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통치안의 하나로 ‘이장님 잘 지내십니까’를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내 이장들과의 개별 만남을 통해 협력치안을 구축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

취해 범죄취약지역을 선정, 지역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준 삼호지구대장은 “마을주민들의 근황을 묻고 위로하면서 농산물 절도예방 등 치안 불안요소도 함께 해소할 수 있어 소통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늘 든든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